

새 옷으로 갈아입는 '교내 홈페이지'

다양한 기능 추가, 모바일 페이지도 새롭게 선보여

9월 말이면 새롭게 단장한 교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화팀은 지난 3월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홈페이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 간 리뉴얼을 진행해 왔다.

개선된 홈페이지의 가장 주된 변화로는 민원 시스템의 개선과 통합 로그인 기능을 꼽을 수 있다.

이번 홈페이지 제작 책임을 맡은 오민호(정보화팀) 팀원은 "무엇보다 민원시스템 개선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이전 홈페이지에는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홈페이지 개선과 함께 각 부처의 민원 책임자를 선정했다.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답변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해당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가 개선되었다. 디자인과 기능적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점이 특히 돋보인다.

'비주얼 모드'는 화면이 스크롤바를 가로에서 세로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콘 모드'를 통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폴더처럼 원하는 메뉴만 모아서 이용할 수도 있다.



▲ 새롭게 바뀌는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최대 14개까지 즐겨찾기가 가능하다. '텍스트 모드'는 한성이슈와 한성공자의 게시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다.

개선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현희(산공 3) 학생은 "홈페이지 디자인이 산뜻해졌고 글자 크기를 조정해 가독성이 좋아졌다"며 변화된 디자인에 만족을 표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정보시스템 페이지는 시스템 개선 없이 이만 바뀌었다는 점이 아쉽다"며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아이콘 모드의 시도가 좋는데 아직 활용도가 낮은 게시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을 조사해 보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스마트 패드(슬라이드)형식으로도 제작되었다.

그동안 우리학교 홈페이지는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9월 말부터 모바일 홈페이지를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을 개설할 때에는 교내 마스터가 초기화면과 대문 이미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다.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기존에는 메인 홈페이지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의 각기 다른 페이지를 이용할 때 마다 매번 로그인 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 개선된 종합정보시스템의 모습

페이지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의 각기 다른 페이지를 이용할 때 마다 매번 로그인 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하게 되었다. 자동 로그아웃 시스템도 개선 중이다.

오민호 팀원은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창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로그아웃이 되거나,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도록 설정할 예정이다."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재식(무역 3) 학생은 "기존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플래시가 나오지 않아 게시판 진입이 어려웠다"며 "모바일 홈페이지는 기존에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보다 접근성이 용이해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보화팀은 홈페이지의 주 사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오민호 팀원은 "개발기간 중 학생들이 제시하는 오류 및 건의사항을 개발업체와 빠르게 수정 중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홈페이지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취업·창업 페스티벌 성공적으로 마쳐

지난 9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미래관 지하 1층 DLC와 스타디 라운지에서 취업·창업 페스티벌이 열렸다. 11일에는 취업설명회가 DLC에서 열렸다. 12일에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심사를 거친 뒤 심사위원 앞에서 제품에 대해 발표했다.

취업설명회를 가진 인사담당자는 "인턴을 잘 활용해야 취업에 도움이 된다.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인턴이나 산학협력에 연계된 인턴을 추천한다"며 "2-3개월 단기 인턴일지라도 자신의 회사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취업 설명회는 1,2학년 학생들도 참가했다. 저학년부터 채용설명회에 관심을 가지면 인사담당자들과 면담으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일반적으로 채용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자주 없어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채용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많다. 인사담당자들은 실제로 채용설명회에서 마음에 드는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지원서를 넣어보라고 권하기도 하기 때문에 채용설명회는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기회다.

우수식(취업·창업지원팀) 과정은 "채용설명회의 반응이 좋았다. 이번 이력서, 자소서 클리닉과 실전면접의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이다. 단기성 면접에는 3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토크콘서트도 개최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뿐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우수식 과정은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의 채용설명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후반기 채용 모집 기간이라 기업체 설비가 많이 어려웠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다음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BM-Tech' 팀의 송규(기계 3) 학생은 "지난 4월부터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팀원들과 협동심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대상소감을 전했다. 'BM-Tech' 팀이 우수한 제품의 이름은 '김이재'라는 '펜 모양의 자'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자와 다르게 편의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직선과 3D, 구불구불한 선 또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성정은(취업·창업 지원팀) 창업지원담당관은 "이번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의 작품은 '서울 중소기업 정상' 중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은 삼급 10만원과 상장을 수여받았다"며 "대상 품목을 실용신안을 등록해 실질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업·창업 페스티벌은 평화여자상업고등학교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학생들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준비된 질문이 아닌 학생이 직접 묻고 싶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정은 창업지원담당관은 "비즈니스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은 교내 학생과 특성하고 학생들이 멘티와 멘토의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이다. 단기성 만남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매년 반복되는 분할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든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학교에서는 매 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약 7,000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체 20%의 학생이 신청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 학기 등록금을 3번에 걸쳐 납부하는 이 시스템은 2012년 2학기 신청 가능인원 중 1,486명 중 1,067명의 학생이 신청해 71%의 이용율을 보였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생 중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있다. 익명을 요구

한 A 학생(국문 4)은 "등록기간 첫 날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을 했다. 등록기간이 끝난 후 다시 확인을 해 보니 분할납부 신청이 되지 않았다. 학생지원팀에 전화를 했더니, 재무회계팀으로 전화를 돌려주었다"며 "재무회계팀은 '담당자가 병가중이니 학기 개강 후 다시 찾아오면지 휴학을 해라' 라는 말의 들어 기분이 매우 불쾌했다"고 그때의 기분을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로 익명을 요구한 B(국문 3) 학생은 "등록 첫날에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분할납부가 신청이 되지 않았다. 전화로 학교에 문의했더니 첫날에 약간의 전산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만약 전산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학교측에서 오류에 대한 문자를 보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류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었다. C 학생은 분할납부 첫날에 신청을 하고 저장을 했다. 분할납부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하고 종료했는데 1차 납부 기간에 고지서 출력력을 누르자

신청 학생만 출력력이 가능하다는 통지가 됐다. 재무회계팀에 전화를 해 문제를 확인했더니 "교내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과 9월 말 까지 등록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다.

A 학생은 "시스템 오류에 대한 사과와 대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행사에 관한 문자는 몇 번씩 보내주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왜 연락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B 학생은 "매년 반복되는 오류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등록에 대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없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선준(재무회계팀) 팀장은 "평소 분할납부는 재학인원의 20%가 신청인원이다. 이번에는 15%로 줄었다. 분할납부 신청 첫 날 잠시 정전이 있어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했다"며 "병가를 낸 담당자가 복귀한 후 이번 사태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학생과 등록 담당자와 별도로 연락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지면 안내

- 2 재정지원 제한대학, 우리학교의 위치
- 3 패시지 어시스턴트, 노동의 사각지대
- 6 인류를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
- 7 상상으로 이루어진 세계 '어둠 속의 대화전'을 관람하다

사 령

임 편집국장 김현섭(무역 3) 수습기자 김수민(행정 1), 정시경(경영 1), 현정은(무역 1)

학생회 소식

졸업준비위원회 졸업앨범 추가촬영 10/4 ~ 6
인문대, 사과대, 예술대, 공과대 학생회 제1회 낙산제 개최 9/20 ~ 9/21
공과대학 학생회 학술소모임 모집 9/17 ~ 27
공과대학 학생회 전자전 9/12 ~ 21

뉴스레터 부활

이번 466호 신문부터 한성대 신문사 뉴스레터가 돌아옵니다!

뉴스레터를 모르는 분을 위한 O&A

Q. 뉴스레터는 무엇인가요?
A. 언제 어디서든 한성대신문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웹진입니다. 발행된 신문의 주요기사를 담은 웹진을 발행해 신문 기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만들었습니다.

Q.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A. 뉴스레터는 매 신문이 발행된 후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들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낙산의 메아리와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에도 게시글을 올려 링크를 걸어놓을 예정이니 더 편리하겠죠?

Q.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나요?
A. 물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제작했기 때문에, 낙산의 메아리와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을 통해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응이 좋다면, 해당 페이지를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우리학교의 위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학교 측 노력 돋보여

2013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전체 337개 대학 중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되며, 13개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었다. 즉,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대학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기준을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지정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지표는 ▲재학생 총원율 105.70%(90%) ▲취업률 57.5%(기준 51%) ▲전임교원 확보율 67.53%(61%) ▲교육비 환원율 115.47%(100%)이며 ▲장학금 지급율은 18.20%이다. 이 중 특히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작년 대비 지표가 각각 11.83%와 14.47% 상승했다. 위 4개 지표 중 2개가 기준보다 낮으면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특히 우리 대학은 지난 해 취업률과 전임교원의 지표가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지난해와 같은 기준이라면 대출 제한을 받았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 본부에서는 이러한 대학평가에 대비해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장영우(기획전략팀) 팀장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본부는 해당부서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교수 측은 학과장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전공과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점도 돋보인다. 학사관리 지수에 포함되는 시간 강사로 역시 1시간에 3만 3천원에서 4만 3천원으로 올랐다.

▲장학금 지급율은 18.20%로 작년 대비 7.2% 올랐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장학금 제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특히 절차 간소화로 인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 효과가 크다. 원래 복지 장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등에 따라 2등급, C등급 등으로 서류절차가 복잡

하였는데 국가장학금 제도로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실시하며 한국장학재단은 학생의 소득분위를 확인해 학교로 바로 전달한다. 0분위부터 3분위까지는 국가에서 일정한 액수를 지급해주며 소득 7분위까지 학교에서 판단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구 노력 및 교육훈련 지원금 역시 장학금 지급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대학의 경우, 대학의 제도적 여건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제도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기본 투자에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장 팀장은 "대학의 교육 목적 및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각 대학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상대평가는 학교 측에서도 부담이다."고 전했다. 장 팀장은 "(상대평가를 의식해) 자칫 (우리학교의 상황에) 필요치 않은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교육 기자재 등의 기본 투자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정부는 재정 지원 대학 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학생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한 대학의 구조개혁 정책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부실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의 단계로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적받은 부분에 사정이 이뤄지지 않고 대학평가 결과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퇴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이 일정부분 제한된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8개교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소대출그룹의 5개교는 30%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그러나 가구 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와 재학생에게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취업률	재학생 총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율	등록금 인상율
2012	57.5% (정보공시 51.4+ 국제성 DB예상치)	105.7%	67.53%	115.47%	52.7%	18.20%	-5.26%
2011	49.43%	106%	55.70%	101%	52.03%	11%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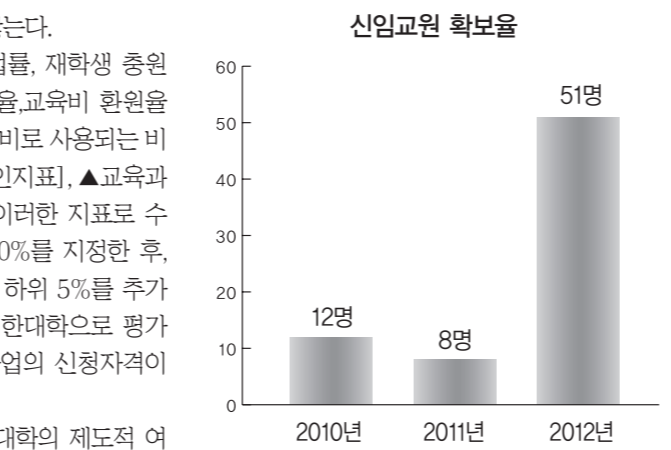
이러한 대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평가지표는 ▲교육성과(취업률, 재학생 총원율) ▲교육여건(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중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되는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법인지표), ▲교육과정(학사관리)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지표로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를 지정할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를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평가되면 13년도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대학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43개교 중 과반수가 넘는 22개교(51%)가 지표개선에 성과를 보였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고,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지표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내부 구성원의 반발과 갈등이 불거지기 쉬운 정원감축과 학교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다는 것이 큰 전환점이다.

그러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확실적인 보여주기식 지표만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교과부가 사용하는 상대평가 방식은 지역의 현실과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 약 2.5%의 할당이 있어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대학이 지방의 대학과 비교해 평가 결과가 좋아도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사 대학평가 결과를 보면 세종대는 지난 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연구 부문 전국 13위에 올랐다.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도 교원당 논문수가 국내 대학 가운데 18위였다. 국민대도 201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31위, 국제화 부문은 22위, 교수연구 부문순위는 20위를 기록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교수학습 단계 네 곳은 지난 6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교과부의 정책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선정의 평가기준이 부실하다"며 "취업률과 재학생 총원율이 대학구조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지난 9월 3일 미래관 지하층 DLC에서 한국어과정 가을학기 입학식이 열렸다.

2012 상반기 감사결과 발표

지난 9월 1일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2012년 상반기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공개기구(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인문대학생회, 사회대 학생회, 예술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가 지난 1학기동안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지난 7월 중순에 진행된 이번 감사는 원정호(산공 3) 감사 1국장, 김승리(의패 3) 감사 2국장과 국원 3명, 총 5명이 함께 진행했다. 김승리 감사 2 국장은 "영수증과 금전출납부 차이가 날 경우 경고 1회를 주었다. 경고를 3번 받을 경우 예산의 1%를 환불조치 하고 있다. 4회부터는 0.5%씩 증가된 금액을 환환하도록 하고 있다. 주의를 2회 받을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고 감사기준에 대해 말했다.

총학생회는 주의 1회와 경고 3회를 받아 단위 예산의 1%인 24만 6,870원 환급 할 것을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다. 총대의원회는 경고 2회와 미사용 금액 85만 원, 환불금 4만 900원을 포함해 총 89만 900원의 환환해야한다. 학생복지위

원회와 졸업준비위원회는 감사시행규칙을 모두 지켜 단위예산을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는 환불조치 없이 주의 1회, 경고 1회를 받았다.

인문대 학생회가 주의 1회 경고 3회로 예산의 1%인 4만 3,700원과 미사용 금액 22만 8,100원, 총 27만 1,800원을 반환 해야 하고, 사과대 학생회는 주의 2회, 경고 3회로 6만 5,900원과 미사용 금액 2만 2,500원, 총 8만 8,400원의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 받았다.

예술대 학생회는 경고 4회로 예산의 1.5%인 5만 4,750원과 미사용 금액 29만 9,260원, 환불금 8,200원, 총 36만 2,200원의 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공과대 학생회는 경고 1회와 미사용 금액 40만 240원을 돌려주게 된다.

김승리 국장은 이렇게 반환된 금액에 대해 "보통 반환된 금액은 감사위원회 통장으로 반환이 된다. 모인 금액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액은 적립된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간주린소식

제2회 독서경진대회 접수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학술정보관에서 제2회 독서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독서경진대회는 11월 7일 오후 4시에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각 단과대 교수들과 위원회가 선정한 추천을 받은 '한성 권장도서 66선'중 지정도서 6권에 대한 시험을 치게 된다.

이 대회는 한성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제는 주관식 단답형 42문제로 각 책 당 7문제씩 출제된다. 정미영(학술정보관) 팀원은 "문제의 개수와 난이도를 책마다 고르게 분포했다. 학생들이 읽은 책에서 문제가 덜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기본으로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수상자 발표는 11월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각각 시상하며 각 상에 걸맞은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지정도서의 목록과 문제 유형에 대한 예시를 확인할 수 있고 참가신청도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 대학생 멘토 모집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성북구에서 후원하고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 멘토링'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멘토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주 2회 방문 해 교사, 상담자, 역할모델, 학습코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내용은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1:1 학습지도, 정서 지원 활동과 공동체 야의 체험 학습 등이다.

4학년 2학기가 아닌 학생들을 제외하고, 직전 학기까지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재학생과 휴학생이 지원가능하다. 40시간 이상 활동을 한 경우 시간당 만 원의 활동비와 봉사활동 증명서가 지급될 예정이다.

박선옥(언어교육원) 교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공교육을 제외하면 학습기회가 매우 적은 편이다. 멘토는 멘티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학습 발달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면 한다. 멘토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책임감과 성실함이다."고 전했다.

한성 아트&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접수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아트&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에서 제 3회 아트&디자인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예술대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들에게 취업을 위한 경력제공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신교빈(아트&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 조교는 "응모분야는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무용, 회화, 시각·영상디자인,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인터레이디자인으로 나뉜다. 각 발표 주제는 예술대학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예술대학 각 과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각 1명씩 수상하게 되고, 총 21명에게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교빈 조교는 "1, 2회 대회 때는 각 상마다 6명에게 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패션디자인공과와 의류패션산업전공을 분리해 따로 수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보다 감소한 수시 지원율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2013년도 1차 수시를 모집했다. 총 모집인원은 702명이고 지원인원은 1만 4,159명이었다. 이번 수시 모집은 20.17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22.37대 1이었던 지원율에 비해 떨어진 수치이다. 그 이유는 지난 해와 달리 올해 수시는 교육과학부에서 수시 지원을 6회로 제한해 지원율이 감소한 것이다.

이번 1차 수시 경쟁률은 경영학부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인호(입학관리팀) 팀장은 "경영학부를 비롯한 사과대 경쟁률이 타 대학에 비해 높은 이유는 취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수시는 10월 14일에 치러지며 인근 5개의 고등학교를 임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예술대학을 제외하고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적성검사를 보게 된다. 적성검사는 수능보다 쉬운 형태로 출제되며, 학교수업을 충실히 준비했다면 풀이가 가능하다. 이번 1차 수시 발표는 11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교 40주년 기념 상상력 올림픽

공모전 오프라인 투표 진행

▶ 기간 _ 9월 17일(월) ~ 9월 19일(수)

▶ 장소 _ 우촌관 3층 대외협력팀 기부벽 앞

▶ 투표 대상자 _ 재학, 졸업, 휴학생 및 대학원생, 전체 교직원

※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오프라인 투표는 인쇄부분만 전시할 예정입니다.

패션지 어시스턴트, 노동의 사각지대

무급인턴을 위해 투잡까지? SNS를 이용한 '정면돌파' 가 대안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은 인턴의 단순 업무를 '단순하지만 시간을 줄일 수 없는 업무의 졸업일'이라고 정의한다. 본래 의과 대학 졸업생 중 의사면허를 받고 임상 실습을 하는 전문의를 뜻하는 단어였던 인턴이 위와 같은 뜻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중 패션 잡지사의 인턴 또는 어시스턴트는 이러한 단순 업무 외에 노동의 측면에서도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무급 인턴을 위해 돈 버는 무서운 '현실'

그들의 본질적인 어려움은 '환상'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이다. 어시는 급여 및 근무 시간 모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정규직 전환 여부도 불투명해 철저히 인맥과 타이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년간 모 라이선스 패션지에 어시스턴트(이하 어시)로 근무한 A(24세, 대학생) 씨는 "요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환상에 속아 패션계에 뛰어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환상이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다. 무급에 가까운 어시로 일하기 위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어시의 한 달 평균 급여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이다. 교통비와 식비를 제하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만큼 뼈다귀 금액이다. 따라서 '투잡'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이 마감 기간에 맞춰 2, 3주 내내 이어진다.

A 씨는 "10시간 내내 식사 시간도 없이 일하다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 비겁



▲ 패션지 어시스턴트를 다룬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006년 개봉작)' 중 한 장면

지만, 그럼에도 꿈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생각으로 버틴다."고 고백한다.

열정적인 노동에도 불구하고 어시가 정규직 기자로 전환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에디터와 관련한 한 인터넷 모임에서 모 잡지 패션 디렉터는 어시에서 에디터가 될 가능성을 '천대 1정도 될 것'이라고 답변했을 정도다. 영국 엘리어답터 잡지 STUFF의 한국판 초대 편집장이자 칼럼니스트인 고진우 씨는 "보통 매체에서 어시는 어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로 구분이 명확하다. 어시하는 친구들이 그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어시에 관한 잡지사의 노동착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된 어시 생활을 버텨내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몇 년 간 잡지에 등장한 '상근 프리랜

서', '인턴십 에디터' 등의 새로운 직업이 바로 그것이다. 출근의 의무가 있는 이 '프리랜서'들은 4대 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기도 힘들다. 서류상 엄연히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다. 고진우 씨는 "인턴이나 어시라는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근 프리랜서란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이라며 어시의 노동 착취에 이어지는 문제를 설명했다.

인턴보다 차라리 SNS를 활용하라

이러한 상황 뒤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잡지사의 현실과 함께 잡지 컨텐츠의 제작 과정이 자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점차 종이잡지의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잡지사의 고용이 안정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자연히 정규직으로 고용된 상태가 아닌 어시는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간단히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잡지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다각화되며 잡지계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보다 전문적인 기사가 필요할 때, 질 좋은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기자로 '영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고진우 씨는 "예를 들어 서울시대 어느 레스토랑이 좋은지 기사를 쓸 때, 패션지에서 패션을 담당하는 친구가 관련 정보를 찾으려면 하루 종일 검색해야 한다. 하지만 레스토랑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 미식가, 블로거들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유용한 정보가 줄줄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학생들의 생각과 달리 패션지 인턴만이 '꿈의 직업'을 갖기 위한 열쇠는 아니라는 예이다. 그대도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면 불리한 고용조건도 모두 감수하겠다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유용한 대안이다.

특정 분야에 탄탄한 콘텐츠로 이름난 파워 블로거가 매체의 객원기자가 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있다. 고진우 씨는 "막연하게 잡지 기자가 되고 싶다고 어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어필하는 것이 훨씬 해 볼 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제3회 '서울 유니브엑스포' 개최

오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민대학교에서 '서울 유니브엑스포'가 개최된다.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창업 박람회와 문화공연,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서울, 경기지역 40개 연합동아리와 37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엑스포 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는 대학생들만의 축제며 어느 기업의 후원도 없이 대학생들이 직접 꾸러간다.

전반적인 기획과 홍보활동 역시 조직위원회와 맡고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한다. 아웃캐мп스 활동을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다.

대학생들이 기획한 이번 엑스포는 자원봉사자 98명과 서포터즈 40명 등 약 200여명이 행사진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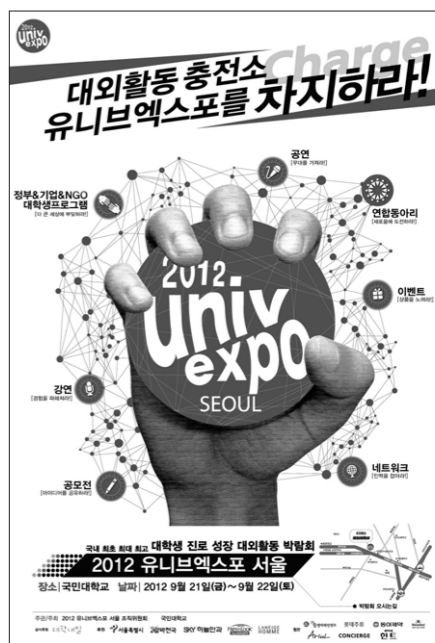
유니브엑스포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FUN KIA'는 행사 당일 K5와 스포티지 차량을 협찬해 참가자들을 김용역 3번 출구에서부터 행사장까지 태워줄 계획이다.

유니브엑스포 서울기획단 홍보실 임이슬(세종대 국문 09) 팀장은 "서울·경기지역 연합동아리, 기업, NGO 등 80여 단체가 참여한다. 방문객들에게 대외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 강연,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카카오톡 대표 이석우 씨와 공부의신 강성태 씨가 재능 기부형식으로 이번 강연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유니브엑스포에서 진행되는 강연은 '성찰'을 주제로 한 강연과 '실무'를 위한 팁을 제공하는 강연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과외처럼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멘토로서 강연을 꾸러갈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많이 희망하는 분야의 업



무를 상세히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해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임이슬 팀장은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연대의 사람들이 꿈꾸지만,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택 시작하기 어려운 창업에 대해서도 강연을 실시한다."며 "이 날 준비된 이벤트는 한 책 나눔, 1년 후의 나에게 편지 보내기, 자신만의 회보 등이다. 단순히 딱딱한 박람회가 아니라 추억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유니브엑스포 공식 홈페이지(<http://www.univexpo.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용은 없다.

임이슬 팀장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한다.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단순히 학점관리와 스펙쌓기에 몰입하기 보다는 대외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도 넓히고,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현섭 기자 103311@hansung.ac.kr

독자투고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강화 촉구

최근 아주 골치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아동 관련 성범죄이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싹들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당하고 있고, 그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아동 관련 성범죄를 하루빨리 단절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도 결국 또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특히,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는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많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재판할 때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아동들의 진술은 대부분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할 판결을 내리는데, 피해 아동의 진술만이 유일

한 증거로 제시될 경우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순수한 아이의 진술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피해 아동의 진술한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사들이 판결을 하기 곤란하다면 시문을 배심원으로 하는 '시민 참여형 재판'과 같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경우와는 다르게 목격자가 있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의 처벌은 어떻게? 2008년 12월에 있었던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고작 12년의 형벌 밖에 받지 않았다. 당시 1심에서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심심미약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이 정도의 형량이라면 아동 성범죄가 더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니 형

량이 저 정도로 줄어도 되는 것인가?

꼭 조두순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형량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꽤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형량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심미약이더라도 화학적 거세와 같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후시 가해자들의 인권생각하면 그런 처벌은 너무 심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말 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인간의 권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어린 아이들을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끼며 자기 절제를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과연 사람인가?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가해자들은 술을 마신 것도 자기 책임이고, 그런 행위를 한 것도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성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은가? 오히려 술을 마신 것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음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앞서 말한 인권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동 성범죄가 발생한 것은 가해자 자신의 탓이 크지만, 사회적 인 구조나 가해자가 자라는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전부 고려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해서 형량을 줄인다면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아동관련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 아동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고통을 주는 그런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 형량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제약들도 점점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가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법이 돌아가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아동 관련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샘들 6기 이현우(무명 1)

낙산만평

이성미(매디 4)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목적

1. 현대문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 상담 신청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2년 9월 10일(월) ~ 2012년 12월 7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출업 논문, (사고와 표현) 과제물, 자기소개서 제외)
4.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5. 신청 방법 :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상담' > 상담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 ②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본인의 신청 확인은 MY PAGE)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교단에서



민경진 교수 (교양교직학부)

새로운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난히 덥고, 별스러운 태풍도 오고 그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별 탈 없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개학 바로 전에 했던 결심-이번 학기에는 꼭 열심히 해보자-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기말까지 이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녹록치 않을 거예요. 제법 빨리 흔들려 버리는 게 결심이거든요.

대학수학, 미분적분학, 공업수학, 미분방정식 이름만 들어도 골치 아프게 생겨먹은 과목들은 신중해서 듣다보면 별세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강의 시작하고 얼마 안가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믿고 공부해 봅시다.

힘든 여러분 결에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으면 물어

보세요. 질문은 무엇보다도 어렵다지요. 이상하게도 갑자기 누군가가 질문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혀버리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돼서 그럴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용기를 내어 보자고요. 학생들은 무엇이든지 질문할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남들이 이것도 모르나고 우습게보지 않을까하는 어리석은 걱정부터 버리세요. 대신 '내가 모르고 남들이 아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나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남이 모르거나도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알아봐서 알려줄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가장 문제만 말입니다. 남들이 어찌 볼까? 다른 사람이 어찌 생각할까? 이와 같은 두려움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항상 그대로 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십시오.

이번 학기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 봅시다. 가끔 등장하는 컴퓨터 게임 페인, 도박 페인, 일괄종축 등 페인들의 얼굴은 공통적으로 뭔가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더 이상 몸이 경고조차 보내 주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후회만 남는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항상 돌봐주고 씻겨주고 편안히 해주고 운동도 시켜줍니다. 에너지도 적시에 잘 보충해주고 건강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2학기에는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나쁜 일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남아 상처를 주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거듭되면 결국 '왜 내게는 불행만 있을까?' 하는 절망만 남치게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잊혀지고요. 나무 끝

에 달린 맛있는 과일을 따라 사다리에 막 으르러는 순간 지나가던 사람이 사다리를 발로 차서 넘어졌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 다 행이다. 사다리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사다리를 발로 밟으면 크게 다쳤을 텐데' 그리고 다시 사다리를 올라가서 맛있는 열매를 차지하십시오. 아주 맛있을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한동안 한다면 어느 샌가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 자기의 모습에 한껏 도취되어 학교 뿐 아니라 졸업 후 사회에서도 단연 우수한 인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나라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 말입니다. 단순히 남보다 좋은 성적과 좋은 학벌로 남들을 주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거듭되면 결국 '왜 내게는 불행만 있을까?' 하는 절망만 남치게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잊혀지고요. 나무 끝

· 사 설 ·

‘공감’ 력의 스위치를 켜자

높은 등록금, 좁은 취업문, 엄청난 육아 비용.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일련의 경쟁이라는 말로 수렴되는 문제들입니다. 필자의 청년시절과 비교하면 제자들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살인적인 경쟁을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감/Empathy’ 이라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필자가 읽은 책 가운데 동물학자인 프란츠 드 발(Franz de Waal)의 ‘공감’이 있습니다. 그 책은 침팬지의 행동 관찰을 통해 공감능력이 윤리감의 형성, 언어, 창의력, 새로운 기술의 습득 등에 중요하다는 논지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통해 협동심, 공정한 상호성과 같은 윤리적 의식이 형성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물리적, 심리적 처지를 공감할 수 없었다면 소통이 없을 것이며 자신과 다른 관점을 이해 못해 창의력 역시 고갈될 것입니다.

공감력은 본능의 영역에 속하는 인지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 발달시키기 어렵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발전 정도가 달라집니다. 침팬지의 경우 수컷은 암컷과 달리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공감력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상황은 집단 내 서열, 먹이, 짝짓기 등에 관한 경쟁의 정도를 말합니다.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공감력이 왕성해지면 공격성이 약해져 경쟁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스위치를 꺼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감능력을 자주 ‘Off’ 상태로 놓으면 점차 그 능력이 감퇴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윤리감은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나 문제해결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대응이론(Correspondance theory)에서 말하는 다른 개체의 신체와 자신의 신체를 대응시키는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도한 경쟁과 공감력의 저하 그리고 낮은 윤리감과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개인 간 소외의 문제,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도 볼을 보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쟁의 문제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감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능사도 아닙니다. 역사적이게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감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 현대는 인간중심의 창의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심할수록 공감력의 스위치를 켜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삼 학 송

힘들면 포기하는 20대, 생각을 바꿔야

20대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만큼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나이이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은 문제가 많다. 의지와 끈기가 부족하고, 힘들면 그것이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끈기와 의지력이 부족한 반면, 개인주의적 성격은 강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곳이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주어진 상황을 회피한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없이 '나만 편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은 대학을 떠나 사회에 진출한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입사하기 전보다 오히려 입사를 하고 나서 더 큰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법이지만, 많은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퇴사하는 이유로 '나와 업무가 맞지 않는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적용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급여가 내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어서', '시험(고시, 공무원 등)을 준비하려고', '집에서 떨어져서' 등의 이유로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

얼마 전 취업포털 사이트 '커리어'에서 채용을 진행한 인사담당자 188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2011년 상반기에 채용된 신입사원 중 69.7%가 직장에서 조기퇴사했다. '직무적응 실패'가 62.6%로 가장 높았고, '급여 및 복지후생 불만'이 44.3%로 나타났다. 부서이동 후 2-3개월 사이에 퇴사하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취업지원생들은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입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잘 표현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채용이 된 이후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지는 확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나는 법인데, 아직도 열정만 앞세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신입사원 퇴사율이 높고, 요즘 20대 청년들이 의지가 약하고 끈기없는 이들로 비춰지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없이 무작정 필드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진정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한다. 만약 하고싶은 것을 찾았다면,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김현섭 편집국장

수습기자 일지

빈번해지는 묻지마 살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얼마 전 여의도에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다. 30세 김 모 씨가 길거리에서 20cm 가량의 칼로 전 직장 동료 조 모 씨, 상사 김 모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행인 2명을 찌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전날에는 수원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여러 사람을 찌르며 가정집에 침입해 가장을 살해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의 나라 일만 같았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웃을 향해 칼을 휘둘렀을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주된 공통점은 '사회적 외톨이'라는 것이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과도 단절된 사회적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일본 용어로는 '히키코모리'라고 불리기도 하며 주원인으로 양파, 게임 중독, 사회부적응, 가정의 붕괴 등이 있다.

사회적 외톨이들은 우울증, 성격장애, 강박증, 과도한 폭력성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는다. 결국 이러한 정신병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이 묻지마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표출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경쟁을 지향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챙기기도 바쁘다. 나 아닌 타인에게 무심해지는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가족들이 옆에 있다면, 사회에서 받은 온갖 압력과 스트레스를 위로받을 수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가정불화가 있는 집이나, 가정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파스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묻지마 살인사건의 증가로 사법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거리 불심검문을 다시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외톨이의 묻지마 범죄는 사전에 예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감시와 검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피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첫째도, 둘째도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됐을 때, 인사도 하지 않고 각자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일, 이웃집

사람들과 말 한 마디 하지 않는 일과 같이 사소한 일상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동료, 친구들이 있더라도 따돌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한다. 이와 같은 작은 시도들이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물론 지역단위의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이웃들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아파트 반사회, 동네 주민회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우울증 상담센터 및 복지센터 등을 개설·관리 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해나간다면, 사흘 간격으로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에 마음 졸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수민(행정 1) 수습기자

에그리나

사랑하는 정기야

정기가 막내로 태어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때론 힘들고 역경도 많았지만 행복과 웃음을 함께 한지도 벌써 24년이 지났구나.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엄마는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

생각해보면, 아직은 너에게 나의 존재는 어떤 값기만 해서 마치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났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어. 그 만큼 부모라는 역할이 자식에게 많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어른으로서 모든 순간 순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겠지.

정기야, 너가 가끔 말썽부리고 그럴 때 내가 호되게 혼내고 그랬던 이유도 바로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였던 것도 있다. 지금의 너는 군대도 갔다 와서 이미 그런 점에서

많이 깨닫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네가 공부 안하고 매일 게임만하고 성격이 바닥을 치던 고3 때 나는 걱정을 많이 했단다. '네가 도대체 커서 뭐가 될지.'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네가 공부하는 것을 보고 많이 안도감이 들었던다. 나는 네가 재수 한다고 할 때 확원이라도 보내주고 싶고 책값이라도 보내주고 싶었다. 그런데 너는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내 손 하나도 빌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어른 다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처음엔 지방에 전문대를 가려고 했던 네가 서울에 있는 한성대에 버섯이 입학해서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보니 벌써 학교 입학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다. 얼마 전에 집에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네가 그랬지? 아직 인생이 편지 모르겠다고.. 그 때는 능담으로 말했지만 아빠가 살면서 느낀 것을 말할까 한다.

인생은 빛이란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빛을 감아가는 과정이란다. 정기도 여러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지만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빛을 굴레에 빠지는 되는 거란다. 네가 지금까지 나랑 너희 엄마의 도움으로 자라왔지만 졸업 후에는 인생의 공부가 시작 되는 거란다. 지금은 그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단다. 이 삶의 모든 과정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너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단

양정기(기계 2) 학생의 아버지 임명섭씨

새로운 코너의 기고자를 찾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에그리나'라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에그리나'는 '사랑하는 우리사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말입니다.

'에그리나'는 한성대 재학생의 부모님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성대 신문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부모님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이고, 글자 포인트는 10포인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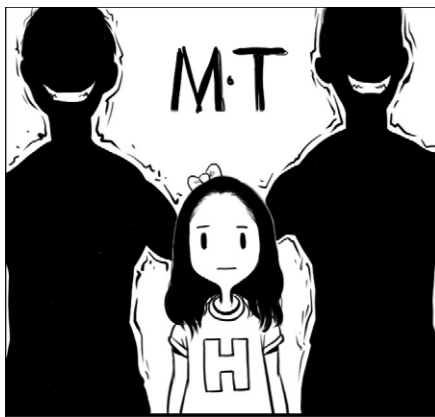
신문에 게재되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신문사 페이스북 담벼락 혹은 쪽지, 신문사(02-760-4186)로 연락 주시거나 김현섭 편집국장(010-6440-1424)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많은 학우들의 참여 부탁 드립니다.

고양문화재단에서 전시 티켓을 협찬합니다





Meeting x Membership Training 0

내동아리 생활

인상관 502호에는 세계 경제를 뒤 흔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경제학 연구회다. 이 동아리는 1984년에 창설되어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동아리다. 경제학 연구회에는 다른 동아리와 달리 칸막이 형태로 된 개인책상과 책장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이 동아리는 경제학과 권혁재 교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5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이 소속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경계열 학생들이지만, 인문대학 학생들도 있다. 대부분의 타과학생들은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 경제학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고 있다.

경제학 연구회 회장 윤주승(경영 4) 학생은 "경제학 연구회는 격주 금요일 아침 8시에 모여 40~50분 정도의 시간동안 영문 기사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 국제 금융 속보 등 배경 설명 가능한 기사를 첨부한다. 동아리원 중 1명을 선정해 읽고 해석을 하는 방식이다."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 말했다.

그는 "동아리 구성원들은 모임 전에 기사를 받아 한 번씩 읽은 후 모임에 참여한다. 보



통 주제는 자유지만 주로 정치, 경제문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토론 중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맡은 학생이 설명을 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다 같이 해결책을 찾아본다."고 말했다.

윤주승 회장은 "2~3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선배와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 선배님들 앞에서 개인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후배들은 각종 경제현안이나 영어칼럼을 평가 받는다."며 "이런 정기적인 만남 이외에도 동아리 운영 관련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 연락을 받아 한 번씩 읽은 후 모임에 참여한다. 보

아담스미스의 후예들 경제 동아리 '경제학 연구회'

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승 회장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로 동아리 창립제를 준비 하고 참여했던 일을 꼽았다. 그는 "행사를 준비하며 선배님들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고 전화도 했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알게 되어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며 "선배님들과의 만남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든든한 소속감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자격인증은 재무 설계 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개인 종합 재무 설계 업무에 대한 국내 전문자격에 해당 AFPK, 증권 3종 자격증(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을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선배들이 조언을 해준다."며 "새로 들어오는 동아리원들을 위해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경제학 동아리인 만큼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경제지력·사고력 테스트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여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학 연구회는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열의만 있다면 어떤 학생도 가입이 가능하다. 윤주승 회장은 "경제학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졸업한 선배들은 대부분 금융업에 종사한다. 이처럼 자신의 꿈이 금융업을 희망한다면 든든한 선배들을 통해 조언을 받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이 지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103311@hansung.ac.kr

성북구 소식통

의령 산책로를 걸어보는

2012. 9월 성북구민 걷기운동 개최 안내

- 행사개요
 - 일시 : 2012. 9. 22(토) 09:00 ~ 10:30
 - 코스 : 의령산책로(약 2.4km) ※ 약 1시간 소요

- 의령입구 주차장(집결) → 매표소 → 전망대 → 정상 → 구 중앙정보부 강당 → 매표소 → 의령입구 주차장(도착)

- 집결장소 : 의령입구 주차장
- 행사내용 : 의령해설, 걷기운동 및 경품 행사 (자전거 2대, 선봉기 10대 등)
- 주관단체 : 성북구민자연연합회

- 오시는 길
 - 지하철6호선 돌곶이역 7번 출구로 나와서 이문동 방향 시내버스(120, 147, 201, 1222) 환승 후 의령입구 하차

- 문의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920-3414

이슬람 문화축제 개최 안내

성북구청에서는 내·외국인에게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이슬람 문화 축제를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개최하오니 다양한 이슬람 음식 및 특산물 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이슬람 문화축제

- 행사일시 : 2012.10.6(토) 낮 12시 ~ 오후 8시

- ※ 개막식 행사 : 2012.10.06(토) 오후 2시
- 행사장소 : 성북천 분수 마루 (한성대입구입구역 2번출구)

- 행사내용

- ▷ 이슬람 음식 체험
 - 터키 음식 안고기 꼬치 케밥, 바게트 케밥, 두름케밥, 터키 차 등

- ▷ 이슬람 특산물 판매
 - 터키, 이란, 아프카니스탄 특산물 및 수공예품 등

- ▷ 이슬람국가 민속 공연
 - 벨리댄스 공연 (터어키)
- ▷ 이슬람 문화 체험 부스
 - 헤나 티투 부스 운영

- 행사주최 : 성북구청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 행사후원 : 주한 터키, 이란, 아프카니스탄, 요르단 대사관, 주한 사우디 아라비아 문화원

- 교통안내

- 지하철 :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버스 : 한성대입구역 하차, 행사장까지 도보 5분 이내

가로세로

1 ①			2 ⑤		9			
								4
2		5						
						6		
3					3 7			
				8			9	
4	7				10			5
				9				

- 정답자 발표
- 육승엽(정답 4) : 010-xxxx-9627

- 학과(학년):
- 이름:
- 연락처:

이번 신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그 기사의 소감을 적어주세요.

가로

- 남의 이야기, 회의의 내용, 전화 통화 따위를 물레 엮거나 녹음하는 일
-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한 장난감 같은 작은 카메라
- 유럽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공화제 국가 수 도는 파리
- 미국 작가 진 헉스터의 소설 (○○○ 아저씨)
- 살물이장단으로 추는 춤
- 목적하는 바를 이름
-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을 줄여 부르는 말
- 배운 것을 다시 익혀 공부함
-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학자. 제자들이 엮은 (논어)에 그의 언행과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 기계와 기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하는 학문. 공학의 한 분야이다.

세로

- 19세기 러시아 대문호이다. 대표작 (죄와 벌),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 유대 왕비 헤로디아의 딸이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의외버지 헤롯 왕의 앞에서 춤을 추어 그 상으로 세세 요한의 목을 베어 달라고 하여 그 목을 얻었다고 한다.
- 그리스의 우주 개벽설에서,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를 이른다.
- 7면 기사의 수가 크래프트를 달리 이르는 우리말
- 제 2회 독서경연대회를 접수받는 곳. ○○정보관 (2면기사 참조)
- 팅 빈 공중
- 차와 과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실무를 배워 익히는 과정에 있는 기재(記者), 4면의 ○○○ 일기.
- 예상하지 못한 사태나 괴이한 변고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이벤트 한성인전광판

이벤트 한성인전광판 이벤트 당첨자는 홍소미(산공 1) 학생입니다. 당첨된 학생은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02-760-4186)

*학과 학년 이름을 기입하신 학우분들 중에서 당첨자를 뽑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문화재단에서 전시 티켓을 협찬합니다

*여행 동아리 유스호텔 신입모집
호1장: 김재현 010-7191-7348
부호장: 이승훈 010-9945-9117

*한광호랑 나랑 10월 31일 200일ㅋㅋ 사랑한다♡
-09 시각영상 정보원-

*2012.09.11 현정어랑 만난 지 500day~♡
-산공 4학년 유혜정-

*본주야, 지각 좀 하지만. 전화 좀 받고.....!
-너구리 일동, 09 경제 이채호, 노지선-

*신승호, 재수 성공해!!
너를 이 중이에 팔아먹어야겠어.
-12 산공 홍소미-

*임근영이야. 우리 만난 지 꽤 됐다. 밥 좀 사라ㅋㅋ
-12 인테리어 이다솔-

*KTX 에매성공. 민족의 대이동에 참여하게 됐다. 찡지?
-시각영상디자인 1학년 정연수-

*난산극회 가족지킴이인 경제학과 김지혜
-11 경제학과 귀염둥이 윤호석-

*내 친구에게.....
영아 난 니가 참 자랑스러워. 난 너무 예뻐서 왜 남친이 없어???ㅋ 생기면 데려와 내가 판단해줄게. 남자는 남자가 봐야돼. 우리 우정 forever.
-영어영문 2학년 강승곤-

*2012년 9월 18일은 준비이랑 하늘이의 200일♡

덤벼라! 토익

문제

- If you've ever dreamed about _____ around the world, this may be the perfect ship for you.
(A) sails (B) to sail (C) sailing (D) sail
- Be sure _____ all stationery orders by 2 p.m. on Fridays.
(A) place (B) to place (C) placing (D) placed
- As there were no chairs left, she asked me to bring her a box _____.
(A) sitting on (B) sitting (C) to sit (D) to sit on
- When I walked into the shop, he was busy _____ calls.
(A) taking (B) takes (C) took (D) take
- Trying to force one's religious beliefs on someone else is futile, for no one can _____ another person believe anything.

- 학과(학년):
- 이름:
- 연락처:
- Q. 한성대신문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A:

466호 정답 & 해설

- The new computer system designed for the bank _____ accounts to be managed over the Internet.
(A) are allowing (B) allow (C) will allow (D) will be going to allow
*중사의 시제를 묻는 문제이다. 그런데 designed 이란 단어도 문장에 따라서 동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과 같이 뒤에 명백한 동사가 따라 나올 경우 앞에 나오는 동사는 본동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빈칸 앞까지 주어가 된다. 주어는 system이라는 단수 명사이다. 따라서 A와 B는 오답이다. D의 경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과 be going to를 함께 쓰는 것은 어색한 표현이다.
*정답 C

- He is particularly _____ by the way his new boss has dealt with emergencies.
(A) impressionable (B) impressed (C) impressive (D) impression
(해설) 그는 자신의 신인 상사가 긴급 사항을 대처하는 방식에 특별한 감명을 받았다.
*본동사가 붙은 자동사인 be동사이므로 빈칸에는 '보여'가 와야 하는 지리이다. 보여로는 (대명사나 형용사)를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내용상 전체 문장과 가장 어울리는 뜻을 지닌 단어를 골라야 한다. impress는 '깊은 인상을 주다' '감명을 주다'는 뜻의 타동사로서 내용상 이 동사의 과거분사인 impressed가 be동사와 함께 쓰여 '감명을 받았다'는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B

- A comprehensive study of corporate managers _____ most executives do not find their work satisfying.
(A) found that (B) which discovered (C) revealing (D) founded
(해설)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에게 대한 권위있는 연구가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그들의 업무를 만족스럽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위 문장의 경우, 뒷부분을 보면 'executives'라는 주어와 'find'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단문이 나온다. 그런데 문장 서두에 'manager'라는 명사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빈칸에는 동사가 와서 '복문'을 구성해야 한다. A는 발견하다, 알아내다의 뜻을 지닌 동사 find의 과거형이며 D는 설명한다는 뜻을 지닌 found의 과거형이다. *정답 A

- _____ we concede that your company does have a point, it is impossible for us to meet your demands.
(A) During (B) Having (C) While (D) As
(해설) 귀사의 말에 동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귀사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불가합니다.
*이 문장도 we+concede that~, it+is impossible~이라는 두 개의 단문으로 이루어진 복문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접속사를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전치사인 A와 현재분사인 B는 오답이다. C와 D중 문맥상 '양보'의 뜻을 가진 접속사가 와야 한다. *정답 C
- _____ people who love their work need time to relax and refresh themselves.
(A) Also (B) Although (C) Even (D) Despite
*who가 이끄는 관계사절은 선행사인 people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며, 따라서 문장성분상 별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괄호 속에 넣는다. 그리고 나면 이 문장은 people(S) + need(V) + time(O)의 3형식 문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주어와 수식하는 형용사가 오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올 수 있는 지리이다. 따라서 B와 D는 오답이다.
*정답 B

최고 득점자

이현정 (무역3) 010- xxxx-6171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인류를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폭우, 가뭄 등의 기상재해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지구촌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됐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존에 위협으로 다가오자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춘 대책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 등 여러 가지 환경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난 100년 간 한반도의 기온 상승폭은 지구평균 상승폭의 3배에 달했다.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해 여름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더웠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24.7°C로 평년보다 1.1°C 높았다. 이는 지난 1994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이었고 평균 최저기온도 21°C를 나타내며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경향은 9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998년은 최근 100년 중 가장 따뜻한 해였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마이클 만(Michael E. Mann) 교수는 나무의 나이테와 빙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기 1000년까지의 북반구 온도를 재구성해 이를 밝혀냈다.

마이클 만 교수에 의하면 현재의 따뜻한 기후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과거 중세 온난 시대에 유럽은 유난히 온난

한 기후를 경험했지만 이는 북대서양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나머지 북반구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는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따뜻했으며 이러한 기온 상승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은 지구 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의 산하부서인 국가평가통합팀(National Assessment Synthesis Team)이 마련한 '미국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기후의 변동성과 변화의 잠재적 결과들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보고서에서는 증가되는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초래돼 이에 취약한 생태계는 불 부족, 식량 공급 문제, 연안 및 영구 동토 지역의 피해 등으로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세가 계속 된다고 가정하면, 이 평가에 사용된 주요 기후 모델들은 미국의 기온이 차기 100년 동안 평균 3-5°C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기온 증가는 호우 및 극단적 강수 사건을 유발하거나 건조한 지역의 확장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지구 생태계, 특히 인간은 매우 취약하다. 보고서는 로키 산맥의 고산 초원 및 일부 보호조와 같은 몇몇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생물종의 변화를 겪거나 초지, 삼림 등이 모자이크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의 소멸과 붕괴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사라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거

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추론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해수위 상승은 기후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인간 생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알래스카에서는 해빙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베네치아 등 저지대 해안 지역에서는 해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침수가 인간 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해수위는 지난 세기에 걸쳐 10-25cm 상승했으며, 이 경향은 더 빠른 속도로 계속될 것이다. 일부 모델들은 해수위 상승이 21세기 말에 50cm에 달하거나 심지어 넘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많은 해변과 습지는 사라지고 연안 문명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한 부분으로 북극 해빙 면적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킨다. 고위도에서의 기온 증가는 전 지구 평균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얼음은 물보다 태양 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반사한다. 해빙 면적의 감소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흡수율을 높인다. 이는 대기에 되먹임 현상을 일으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일으킨 초기 기온 증가를 증폭시킬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무분별한 사용과 이산화탄소 과다배출, 과소비로 인한 자원의 고갈, 쌓여가는 쓰레기 문제는 미래 인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 다소비 제품은 대부분 환경재앙이 되



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은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교란 등 환경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버려지는 비닐봉지는 5000억장, 원유 1200만 배럴과 맞먹는 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비닐봉지를 2억 장을 소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규제되면서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을 하는 것이 일상 풍경처럼 되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야채와 과일 등 대부분의 채소는 비닐봉투에 넣어 가격표를 붙여주기 때문에 비닐봉투 사용은 여전히 상행이다.

한편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된다는 것을 안 지금,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비닐봉투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환경은 인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선택과 실천이 지구온난화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열쇠다.

박규원 천안오교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

食道樂

식도락은 우리에게 생소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음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로 잡기 위해 기획된 코너입니다.

완전식품? 웃기시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하늘을 찌르는 요즘, 맵스컴에서는 식생활 관련 기사가 끊이지 쏟아진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OOX 선정 10대 건강식품이 어찌구 저찌구... 마치 이 W 세상에 그 이상의 완벽한 식품은 없는 듯 떠들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상에 완전식품이란 없다. 우유가 완전식품 아니냐? 절대로 아니다. 우유는 송아지에게만 완전식품이다. 그렇다면 모유는 완전식품일까? 역시 아니다. 모유는 생후 4-5개월까지의 영아에게만 완전식품이다. 비타민 C도, 엽산도, 그리고 철분도 턱없이 부족한 게 모유류의 특징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식품이 없으니 건강을 지킬 방법은 단 하나. 골고루 먹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자, 이제 어떻게 먹어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다. 고기를 먹을 때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너무 나도 간단하지 않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아침식사로 샌드위치를 먹으려 한다. 빵 사이에는 치즈와 햄을 끼워 넣었다. 음료로는 우유와 오렌지주스 중 뭐 마셔야 할까? 정답은 오렌지주스. 만약 상추와 토마

토가 들어간 야채샌드위치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럴 땐 우유를 마셔줘야 영양균형이 딱 맞는다. 쌀밥에 토란국, 감자볶음, 김구이, 그리고 김치까지. 이정도면 아침식사를 대신 계란집으로 살짝 바꿔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해야 할 때에도 영양균형은 따져주자. 짬뽕이나 자장면, 냉면이나 비빔밥 등 일품요리(한 그릇 음식)는 직장인이 점심식사로 많이 찾는 메뉴를 일품요리는 별다른 반찬 없이 먹기 때문에 한 그릇 안에서 영양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면류요리는 채소나 고기, 해산물 등 부재료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나마 비빔밥이나 회덮밥은 일품요리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음식에 속한다. 또 OO백반, OO정식 등 반찬이 골고루 따라 나오는 메뉴는 대개 일품요리에 비해 더 다양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따라서 영양균형이 더 잘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 다음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양학 사전에 다다익선(多多益善)이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아무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모든 영양소는 과잉 섭취시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당근은 항산화작용이 뛰어난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폐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매일 매일 당근주스를 갈아 마시면 얼굴이 노랗게 된다. 바로 그 몸에 좋은 항산화성분, 베타카로틴 과잉증이다.

식이섬유소가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라고 한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했던 흉부네 아이들은 풀뿌리와 나무줄기에 풍부한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어서 건강했을까? 전면에 팔썸. '짚어지게' 가난했던 흉부네 아이들은 모두 식이섬유소 과잉으로 '풍구'가 뿔어졌다.

지금 뭘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위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골고루' 그리고 '적당히.' 쉬운 듯 보이지만 쉽지 않은 두 가지 원칙. 이것만 지켜도 건강 식생활의 절반은 성공이다. 이 세상에 완전식품 따위는 없다.

이미숙 (이미숙의 건강한 식탁 원장)

경제 모니터링

중국혁명과 국퇴민진, '무위지치'

1949년 모택동은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어 기나긴 난세를 끝냈다. 오늘날 중국의 번영도 중국혁명의 결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의 미래를 논할 순 없다.

그런데 중국혁명을 공산혁명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실체를 알 수 없다. 더구나 민주선민주 이분법에 기초한 서양적 접근법은 혁명의 개념을 착각하게 만든다. 반민주적이라는 한마디로 중국혁명을 가볍게 폄하할 수 있는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에 맹자는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끌어내려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폭정에 대해 인민이 일어나 싸우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혁명은 폭정에 대항하는 것이며 인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민은 폭정에 대항했으며, 러시아 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도 혁명이다. 산업노동자든 부르주아든 농민이든 모두 인민의 범주에 속한다. 정치권력을 쥔 기득권과 지배

층의 폭정에 시달린 인민과 비기득권이 참다못해 일어섰는데 정당성이 없겠는가? 중국 혁명을 현대 민주주의 개념과 맑스주의만으로 설명한다면, 중국인민이 기득권에 맞서 싸웠다는 명백한 사실을 놓치기 십상이다.

보편적인 혁명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혁명의 결과도 도출할 수 있다. 폭정과 실정을 무너뜨렸으니 정치가 바로 서고 기득권이 독점하던 정치권력이 인민과 비기득권에게 개방되어 참여가 확대된다.

농노 진승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고 외치며 진나라 폭정에 대항했고 마침내 평민 유방이 황제가 되었다. 재상 소하를 비롯해 조참, 진평 등 한나라 정치의 중책을 맡은 이도 대부분 평민이었다. 정치가 소수의 독점물이 되면 인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 민심을 무시하고 소수만을 위하여 곧 폭정이다. 정치가 부패하면 나라일에 유능한 인재가 쫓겨난다. 무능한 자들이 제 임무를 다할 수 없으니 곧 실정

이다. 한나라 시대에는 서자 실정과 폭정이 없어지고 유능한 인재가 적절하게 기용되고 부패가 감소했다. 한문제에 이르러 태평성대를 이룩하니 이는 혁명에 따른 결과지 우연이 아니다.

중국혁명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변혁의 기틀을 닦았다. 그러나 모택동 시절 계획경제에 대한 집착이 중국의 저성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등소평이 두 번째 지도자가 되면서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장경제의 확대를 기초로 하는 개혁개방을 과감하게 단행했다. 결국 등소평 개혁개방도 혁명의 산물이며 맑스주의의 틀만으로 중국혁명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시장경제를 존중했으며 작은 정부를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다. 유방은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점령한 뒤 수많은 법을 폐지하고 단 3가지 법을 공표했다. 이를 '약법삼장'이

라 일컬으며 무위지치를 실제로 적용시킨 것이다. 노장사상(황노사상)에 기초한 무위지치는 작은 정부 개념의 시초였다. 유방의 아들인 한문제는 형벌을 줄이고 각지의 도로와 관문을 백성에게 개방했다. 정부가 거두는 세금은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줄였고 마지막엔 50분의 1로 줄였다. 시장이 활기를 띠고 농상공 모두가 발전했다. 태평성대의 비결은 바로 작은 정부였다.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무위지치의 사상이 이어져 후대가 모범으로 삼았다.

결국 등소평의 개혁은 무위지치의 현대적 재해석이다. 최근 중국 최고의 경제학자인 우징젠(사회과학원) 교수는 국가는 빠지고 민간기업에 힘을 싣는 것이 국퇴민진을 주장했다. 2012년 상반기 동안 일반(개인)기업의 이익이 15.5% 증가해 부진한 국유기업을 압도했다. 국퇴민진과 무위지치가 중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이강년 책임연구원

서평

남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우리는 사랑일까/알랭 드 보통/은혜나무』



연애를 하면서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어', '그가 날 정말 사랑하는 걸까?',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행동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덮는 그 순간까지 공감이 공감을 더할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이 책에서 연애를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연인 사이의 감정의 괴리를 여자 주인공 엘리스와 그녀의 애인 에릭의 감정을 세밀하게 관찰해나가며 풀어내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호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사랑을 풀어나

가고 만남을 유지해나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기고 소통의 벽이 생겨 감정이 식어가고 결국 이별을 선언하게 되는 순간까지. 알랭 드 보통은 연애의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들을 섬세한 감정묘사와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보여준다.

작가는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 성장배경, 생활 습관 등을 묘사하며 두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서술해나간다.

여러 심리학자·철학자들의 이론, 다양한 예술 작품과 예술가들의 예를 두 사람의 상황과 적절하게 조합해 한편의 서사를 만들어 내는 점은 작가의 통찰력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고, 이 소설을 읽는 재미를 한층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동상이몽. 두 사람이 함께 사랑을 하고 있는 데도 두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

고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들이지만 때론 의외로 수밖에 없는 이유. 별 것 아닌 일에도 예민해 지는 이유 등을 설명해주는 책이다.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내가 지라온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일정부분 이상 오버랩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읽는 내내 '작가는 내 맘을 어쩔 이리도 잘 알까?', '남자 작가가 여자들의 마음을 이토록 잘 알아도 되는 건가?',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지.' 라는 생각들을 하며 주인공과 몰아입게 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작가, 알랭 드 보통이 풀어내는 지적이고도 심리학적인 연애소설. 지금 당신이 사랑을 하고 있다면, 혹은 이별을 경험한 지 얼마 안됐다면 지금 당장 읽어봐도 좋을 책이다.

학술투

2012년 하반기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 안내

- **일시**
2학기 학생예비군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 : 2012년 10월 18일(목), 09:00~18:00(8H)
- **장소** : 덕릉예비군교장(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당고개)
- **대상** : 한성대(원)교 학생예비군 중 '12년 전반기 향방작제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자 또는 1학기 향방기본 무단불참 및 미 이수자'
* 개인별 훈련 일자 및 시간 : 한성공지 첨부 참조(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
- **행정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규정된 예비군복장 착용(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및 바늘, 고무링)
 - 09:00까지 입소, 지각할(09:30 이전 입소자)시 추가 교육 1시간
 - 09:30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하며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 됨
 - 문의전화 : 02-760-4176, 010-5075-6553(예비군연대 : 우촌관 608호)
- **기타**
 - 대중교통 이용 시 : 전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33번, 33-1번, 10-5번 시내버스 승차 당고개 덕릉예비군훈련장 하차 / 입소
 - 자가 차량 이용 시 : 삼선교 → 미아리고개 → 북서울꿈의 숲 → 당고개역 → 덕릉예비군훈련장
 - 수업출석 인정 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개인 e-mail로 소집통지서 발송해두었으니 출력하시거나, 학교예비군연대(우촌관 608호, 전화 02-760-4176)에 방문하여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 훈련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 ※ 훈련 무단 불참 시 불이익을 받으며 개인별 훈련일자 및 시간은 한성공지 첨부파일 에 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하여 참석바랍니다.
 - ※ 전입신고를 미 실시한 대학(원)생 예비군대원은 한성대학교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상으로 이루어진 세계 '어둠 속의 대화전' 을 관람하다

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체험전

어느날 갑자기 시력을 잃는다면, 사람들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 걱정을 할 것이다. 보는 즐거움을 사라진다면, 삶의 낙이 없어지고 절망감에 빠져 살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살아 가고 있는 삶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있다.

1988년 독일에서 시작된 '어둠 속의 대화전'은 지난 25년간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전세계 160여 곳에서 700만 명이 경험한 전시다. 이 전시는 단순히 시각장애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전시체험과 퍼포먼스가 접목된 신개념 종합예술이다.

'어둠 속의 대화전'은 독일의 안드레아 박사가 처음 만들었다. 안드레아 박사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그의 동료가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 전시의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지인의 지하방을 통해 처음 만들었다. 점차 인소문이 났고 규모가 커져 지금과 같은 전시장 규모가 되었다.

한국에서 '어둠 속의 대화전' 전시를 기획한 사회적 기업 'N-Visions'의 송영희 대표는 "한국에서는 2007년에 처음 전시회를 열었다. 그 이후 반응이 좋아 정식 오픈한 것은 2010년이다. 이 전시는 사전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소그룹 단위로 보통 8명의 인원이 한 조가 된다."며 "하루 평균 100명 정도 방문을 한다. 전시를 시작한 2년이 지난 지금 누적 관람객은 10만 명이 넘었다. 보통 찾아오는 관람객은 20~30대가 주를 이룬다. 학생들, 임산부,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이 전시에는 개인관람 뿐 아니라 단체관람



객도 많다. 기업들은 일 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신입사원과 직원교육시에 하기위해 이 곳을 방문한다. 어둠 속에서 촉각과 청각, 후각만으로 사물에 대해 상상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창의적 발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송영희 대표는 "전시를 마치고 나면 관람객들은 후기를 쓴다. 주로 철학적인 내용들이다. 표현이 매우 다양하고 재미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시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로드마스터'가 있다. 로드마스터는 관람객들에게 큐레이터 역할을 하며, 관람객들이 다치지 않게 이끌어 준다. 채영찬(N-Visions 직원) 로드마스터

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관람객들이 도움을 받고 고맙다고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현이 다양해진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의지한다. 이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표현을 한다. 전시회를 즐기는 동안 만큼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어둠 속의 대화전'을 관람한 이호란(공무원 40) 씨는 "이 전시회를 주관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 하여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이 곳으로 연수를 보내주었다. 처음에는 전

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좋았다."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한다.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시를 관람한 후 느낀바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최창현(삼봉초 5) 학생은 "오늘 좋은 추억 남겨주신 로드마스터님께 감사하다. 유쾌한 웃음소리 정말 못 잊을 것 같다.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박세연(보성초 4) 학생은 "정말 신비하다. 시각을 제외한 모든 것을 느껴 좋았다. 손해선 로드마스터님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영희 대표는 앞으로 이 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단순히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다른 감각을 이용해 보는 것이 기억이 더 남는다."며 "어둠 속의 대화전"을 통해 연상되고 떠오르는 것을 마음 속으로 상상하고, 앞으로 시각 장애인을 만난다면 그들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을 버리고 대해줬으면 한다."며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어둠 속의 대화전'에서는 기대 이상의 경험과 상상하지 못했던 의도, 진실된 자신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서로에 대한 믿음,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어둠 속의 대화전'을 관람하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야 기다리지 않고 관람이 가능하다.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1%의 어떤것

설탕으로 세상을 만드는 조물주 '슈가크래프트 아티스트'

조물주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조물주를 닮은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 여러 가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중 설탕으로 공예를 하기 시작한 것을 슈가크래프트라고 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슈가크래프트는 슈가파우더, 젤라틴, 물엿 등을 밀가루 반죽처럼 섞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는 공예다.



슈가크래프트 아티스트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설탕 공예가'라고 부른다. 설탕공예는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설탕공예가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손재주와 감각만 있으면 된다.

케이크 팩토리 학원의 천용필 원장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두 개의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이 아주 뛰어난 설탕공예가이다. 천용필 원장은 "나는 10년간 제과·제빵 업계에서 일을 했다. 잠시 휴식기간을 가지는 동안 설탕 공예에 대해 알게됐다. 그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탕공예는 슈가케이크의 데코레이션이나 크림케이크에 장식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예부터 영국 결혼식에서는 설탕공예가가 만든 케이크를 먹었다. 이때 케이크를 결혼식 날 바로 먹었다. 이때 케이크를 결혼식 날 바로 먹어서 설탕으로 덮어주면 된다. 설탕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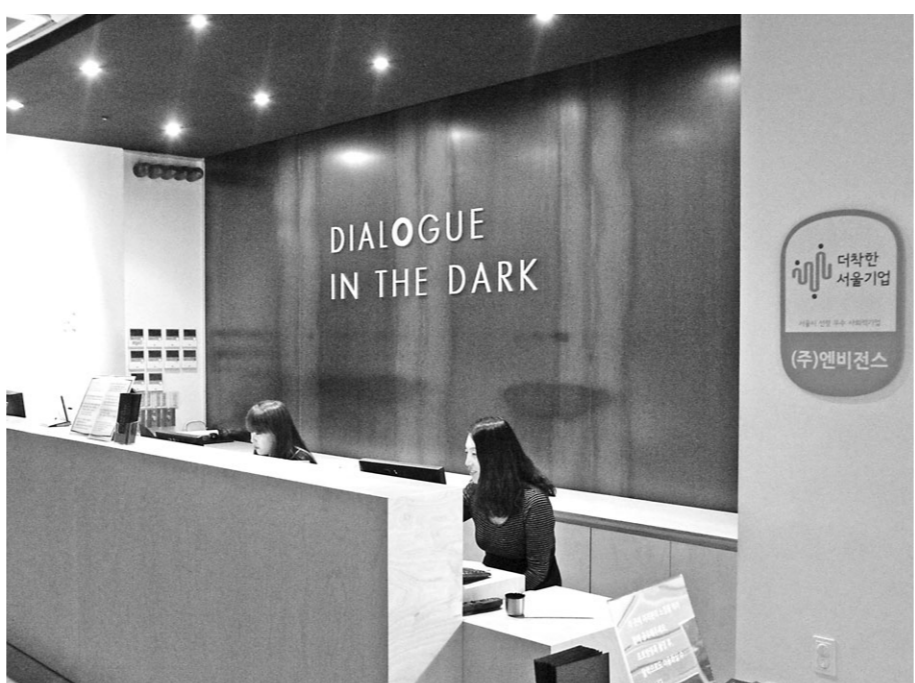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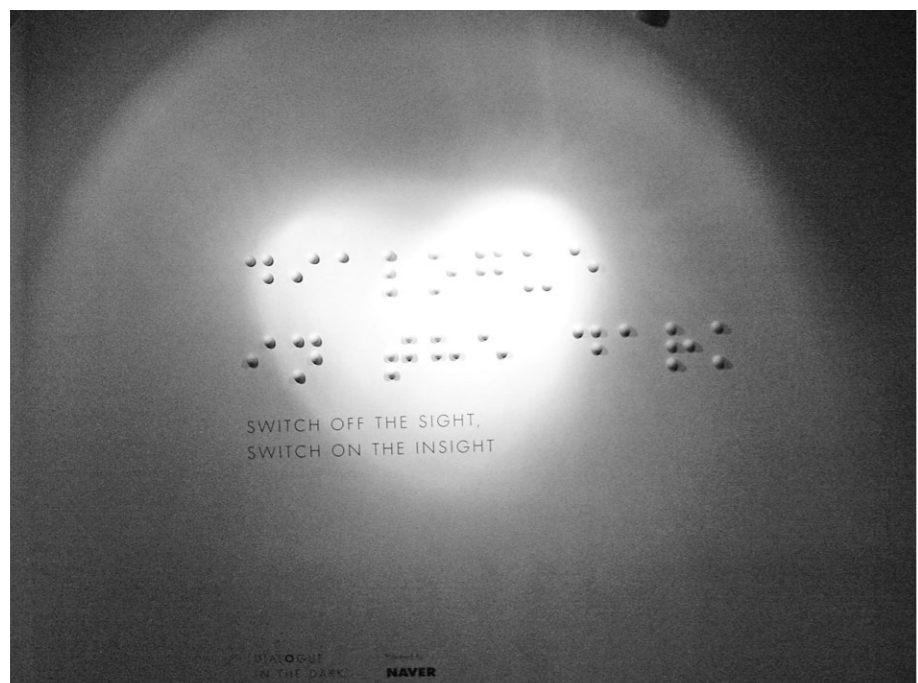
설탕공예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다. 그 중 모델링은 점토와 같이 말랑한 반죽을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공법이다. 여러 색깔의 식용색소로 다양한 빛깔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많은데, 사람이나 사물 등 원하는 것을 주문하면 주문자의 기호에 맞게 만들어준다.

천용필 원장은 "장식품에 따라 다르지만, 구매자가 주문을 할 경우, 제작하는데 보통 3일정도 걸린다. 최근에는 드라마 각시탈과 넝쿨당의 팬들이 설탕공예를 이용해 만든 3단 케이크를 주문했다. 팬들이 배우들과 스태프를 위해 케이크를 주문 제작해 특별한 선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탕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퍼져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설탕공예를 알아주고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현섭 기자 1033111@hansung.ac.kr



사진이야기



09학번 영문과 피보다 진한 술로 맺어진 우리 M family, 1학년 새내기때부터 꼭 붙어 다니면서 토 삼키며 막타치고 집가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나는 4학년이 되고 승곤이는 예비군이 되고 정미연이는 휴학하고 돌아와 다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있다!!!! 서로 결혼식때 최신행 벽걸이 티비, 냉장고, 침대, 에어콘 사준다는 저 약속 이제 한성대 학생들이 다 봤으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 항상 고맙고 사랑해!^^

박서영(영문 4)

제5회 한성대 영상제

개 최 일 2012. 11. 16(금) 14:00 ~ 17:30

장 소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

대 상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작 품 공 모 10. 1(월) ~ 10. 26(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우촌관 509호 교양학부' 에 제출)

출품확정공지 2012. 11. 7(수) (개별 연락 및 학교 게시판 공지)

작 품 주 제 자유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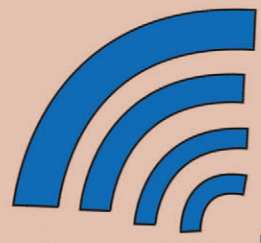
작 품 형 식 런닝타임 15분 이하의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CF, 뮤직비디오, UCC 등

출 품 포 팟 DVD에 파일 형태로 저장해서 제출 (avi, wmv, mpg 등)

문 의 한성대학교 우촌관 509호 교양학부 사무실 (02. 760. 4446)

주 최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상금 및 부상 1등 1팀 100만원 / 핸디캠코더, 2등 2팀 50만원 / 디지털 카메라, 3등 2팀 25만원 / 폴라로이드 카메라, 장려상 2팀 usb 외장하드
* 행사 참가자 중 행운상 추첨 예정, 부상은 변동 가능



한성대 신문사 37기 수습기자 모집

“한 사람의 *세계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크기 만큼이다”



당신의 세상은 얼마나 넓습니까?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면,
당신의 세상을 넓히고 싶다면, 신문사로 오세요.
힘든 시간도, 즐거운 시간도 함께 나누며,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가족을 구합니다.



모집 분야: 학내 뉴스 및 사회/문화/기획면 취재기자
(사진촬영 가능한자 우대)

모집 기간: 9월 3일부터 9월 21일 까지

모집 인원: 00명

지원 자격: 재학생 1~2학년

선발 전형: 신문사 방문 후 입사지원서 작성

신문사 혜택: 수습 2개월 후 활동비 지급, 소정의 원고료 지급, 카메라 및 MAC 교육, 개인
책상, 사물함, 컴퓨터 제공, 기자인증서 발급

문의: 010-6440-1424 / 02)760-4186